

새로운 시작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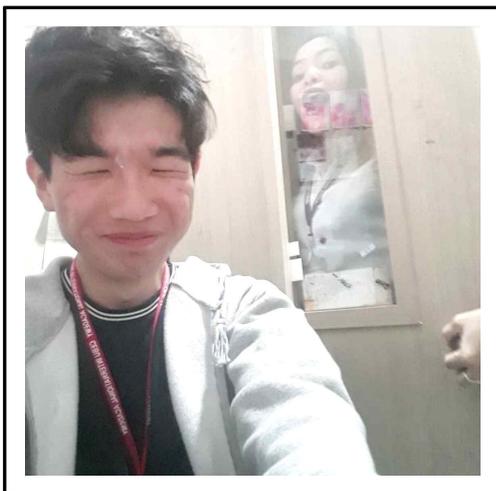
계명문화대학교 호텔항공의식관광학부 도전영

“평범했던 매일”

19살, 보통 19살이면 대학이라는 길에서 고민하지만 나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다. 특성화고를 진학하면서 이미 호텔리어 전공에 들어가면서 호텔조리실습, 바리스타, 컵테일, 카지노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방학시간을 이용한 실습 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여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남들 다 가는 대학이라는 생각으로 입학 하였고, 정말 성실하지 못하게 1학년을 마무리하고 복학 후 이미 특성화고에서 취업 후 쪽 일하는 친구들은 좀 더 경력을 쌓고 있었다. 이에 정신을 차리고 학교의 행사가 생긴다면 부족하지만 도우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막연한 노력이라는 생각을 한편에는 가지고 있었다. 결국 부족한 나 자신을 항상 외면하고 피했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K-move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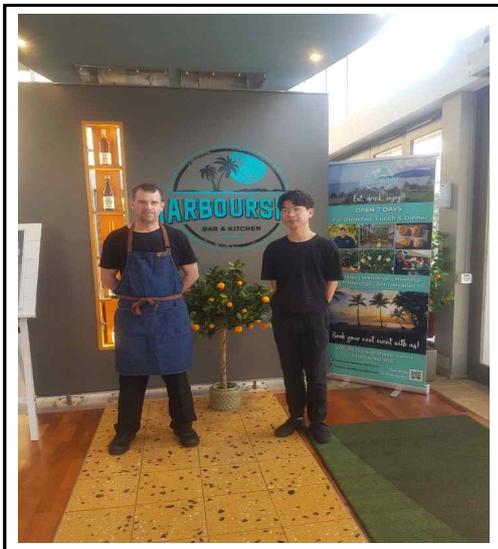
프로그램이 시작됨에 따라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수님들의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수업에서는 영어도 물론 도움이 되었지만 교수님들의 이때까지의 경험들을 들을 기회도 종종 생겼다, 그때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오지 않을 거 같은 지금 생각하면 짧은 필리핀 생활을 시작했다, 필리핀에서 첫 시작부터 많이 미끄러졌다,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매일 시험 후 통과점수를 받아야만 주말 외출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남들은 1시간 투자하면 외울 수 있는 수준의 단어들도 나에게서는 장벽처럼 높게 느껴졌다. 이때까지 영어공부를 하지 않은 내가 한탄스러울 뿐이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적고 더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였다, 나는 그렇게 단어 시험 중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통과할 수 있었지만 시험뿐만이 아닌 수업 자체가 또 다른 장벽처럼 느껴졌다. 단체수업 중 다른 학생과 영어로 1 대 1로 이야기를 하며 파트너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이 있었다. 이 수업 때는 나는

몸짓과 부족한 영어로 나에게 대해 설명하였고, 수업이 끝난 그날 밤에는 번역기와 단어책을 참고하여 파트너에게 말하지 못한 걸 말할 계획을 세웠지만, 좀처럼 쉽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좀 더 보충하여 나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1 대 1수업 어렵지 않고 재밌게 했었던 거 같다. 1 대 1이라 선생님도 나의 수준에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좀 더 영어를 대하는 태도에 “적극적 “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필리핀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룸메이트들과 헤어지며 다음에 다시 볼 날을 약속하며 헤어지며 드디어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너무나도 더운 날씨였다, 필리핀에서의 무더운 날씨를 견뎠지만 호주의 첫인상은 쉽지 않았다. 호주에서의 3달간 수업을 통해 Certificate 3 Hospitality 학위를 취득하는 수업을 듣게 되었다.



다른 학생보다 부족한 영어실력에 필리핀 생활을 통해 자신감을 조금 얻은 난 엄청 큰 한계를 느꼈다, 호주에서는 영어공부가 아닌 영어를 전공수업을 공부하며 많은 과제들을 주마다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선 실습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기간 동안 Holiday Inn 호텔에서 웨이터로 실습을 진행하였다, 웨이터 중 혼자만 아시아 사람이라 적응에 겁도 많이 났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능동적으로 일에 대처할 수 있었고, 고객에게 커피를 주문을 받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갔다. 일이 조금 없을 때 직원들과 주말에는 무엇을 했는지 와 축구 이야기도 하는 소통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족한 나의 가치관을 채워가며”

프로그램 종료된 현재 청소 일을 하고 있다. 남들이 보면 청소 일을 왜 하냐고 할 수도 있다. 내가 부족하여 호텔에 취업하지 못한 일정 부분 또한 있겠지만, 청소 일을 통해 개인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정비 시간을 가져볼 계획이다. 어릴 때부터 낯선 타 지 생활을 했었지만 호주까지 와서 나 혼자 부모님과 친구들의 도움에서 벗어난 거 자체부터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성격도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대학을 졸업하며 취업을 했다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삶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

한 체 취업을 했을 경우 이리저리 방황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으로 호텔리어로써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